

분발하여 새로운 도전 맞이할 준비 하겠다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설립 20주년 경축행사 성대히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랑태은 회장



전국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와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에서 축하 증정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 모범회장들에 시상



무용 공연의 한 장면



기악합주 무대



전체 공연자들과 배반들 기념촬영

8월 3일, 서란시문화활동센터에서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설립 20주년 경축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서란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하옥국, 서란시인대상무위원 전 주임 양문단, 서란시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서란시민족종교국 국장인 진우검, 서란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우정, 서란시로령사업위원회 사무실 주임 사열, 서란시재정국 과장 우홍양, 서란시로간부서비스센터 주임 리소신 등 서란시 정부 해당 인사들과 서란시로인협회 회장 주영하, 서란시로인게이트볼협회 주석 왕국영 및 전국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대표 전진옥,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회장 리장수, 부회장 전홍수, 비서장 주준희, 친목회 고문 왕명, 《로년세계》잡지사 주필 오경준, 발행부 주임 심예란 등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 1부 개막식 개막사에서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랑태은 회장이 협회가 걸은 지난 20년을 회고했다.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는 당과 정부의 로령사업 방침을 참답게 꾸준히 서란시 조선족사회의 실체에 결부하여 관철 집행 착착해왔고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리념적, 조직적, 물질적, 활동적 통일기반을 닦고 생존과 가치를 검증받았다. 협회 사업은 종합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며 자립적 조율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을 정시하고 열심히 진로를 탐구하고 방법을 창신해왔으며 협회 위상과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사회각계의 리해와 지지를 얻어내었다. 지금 협회는 ‘6호 협회’ 꾸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당지부생활, 로년대학, 로년문예, 로년체육, 로년보건, 고령로인집단생일, 로년후사처리, 후대교육, 로년관광조직, 사회봉사 등 각 방면에서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협회로 성장했다.”고 랑태은

회장은 총화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앞으로의 려정이라며 총회 산하 23개 분회 2천명이던 회원수가 지금은 500여명으로 줄었지만 분발하여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전정옥녀사와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리장수 회장은 축사를 했다.

리장수 회장은 축사에서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랑태은 회장의 인솔하에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가 걸은 지난 20년은 휘황한 성과를 거둔 20년이였다.”며 그 공적을 서란시정부의 관심과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고 훌륭한 리더인 랑태은 회장의 로고와 갈라놓을 수 없으며 서란시 조선족행정촌 총장들의 지지와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 전체 회원들의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 선진모범 표창식이 있었다.

서란시 금성촌 등 10개 조선족행정촌의 총장, 총서기 10명이 경로모범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서란시 영안촌로인협회 회장 리상렬 등 13명이 모범회장 칭호를 수여받고 서란시 자경촌 방광수 등 14명 회원이 우수회원으로 표창받았다.

이날 행사 2부에서는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와 산하 분회에서 선출한 18개 문예종목이 공연되었다.

악기 연주와 노래,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이 선후로 무대에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서란시 금성촌로인협회의 동기동기 풍년춤에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어 관객들도 무대에 올라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었다.

한시간 반 분량으로 진행된 정제로운 문예공연으로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설립 20주년 경축행사는 원만히 막을 내렸다. / 차영국기자



강성의 산수·인문·산간마을 변화 구가한 문학력작—《동산요》출판

최근, ‘장백산문예상’ 수상자인 길림시 녀작가 양일(楊逸)의 장편소설 《동산요》가 작가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북극 강성의 산수와 인문을 생동하게 묘사하고 산간마을의 거대한 변화를 구가한 이 문학력작은 일찍 국가급 중점문학 정기간행물 《중국작가》잡지에 첫선을 보였으며 길림시에서 처음으로 중국작가협회 ‘새시대 산간마을 격변 창작계획’에 당선된 장편소설이다.

양일은 3년에 걸쳐 길림시 여러 향진과 촌툰에 심입하여 생활을 체험하고 생동한 필치로 산천지모, 풍토인정, 력사문화를 묘사하였으며 송화강, 복산묘화, 옛거리 등 도시와 농촌의 생활장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보여주고 많은 생생한 인물형상을 창조했

다. 또한 강인하고 선량하며 락관적인 강성인민들이 당의 령도하에 함께 분투하여 산과 농촌의 거대한 변화를 실현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22년 8월초, 중국작가협회는 문학신인을 육성하고 산간마을 사람들이 산간마을 격변을 쓰는 방식으로 새시대 중국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위한 데 취지를 둔 ‘새시대 산간마을 격변 창작계획’을 가동했다.

지난 5월 20일까지 도합 32편의 작품이 이 계획에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길림성의 두 작품이 포함된다.

장편소설 《동산요》의 입선과 출판은 길림시 현실주의 제재의 장편소설 창작이 돌파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표징한다.

/ 송화강넷

길림석유화학그룹 석유화학공업업계 홍색교양기지로

일전, 길림석유화학그룹회사가 전국 ‘석유화학공업업계 홍색교양기지’로 확정되면서 석유화학공업계에서 당성 교양을 전개하는 새로운 진지로 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국석유화학공업련합회, 중국에너지화학지질공회와 중국화학공업종업원사상정치사업연구회의 련합 고찰을 거쳐 홍색교양기지를 길림석유화학에 정착시키기 로 확정했다. 이로써 길림석유화학은 천진발화영리(渤化永利) 화학공업, 석유칠리촌(石油七里村) 채유공장에 이어 세번째로 이 명칭을 받은 기업으로 되었다.

길림석유화학은 우리 나라 석유정제와 업종의 핵심기업으로서 설립 70년간 국가를 위해 제품, 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배산정신’(背山精神), ‘마대모정신’(麻袋毛精神),

‘모순락정신’(矛盾乐精神), ‘등천정신’(登天精神) 등 길화 ‘네가지정신’을 형성하였다.

길림석유화학은 ‘신중국 화학공업장남’의 홍색력사문화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리용하여 홍색리상, 애국정신, 전진력량을 결집한 정신 신고지를 구축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학습과 제고의 큰 교실을 제공하게 된다.

홍색교양기지의 정착을 계기로 길림석유화학은 당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품질 당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선도하며 형태 전환의 업그레이드,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 ‘실력있는 길림화학, 활력 넘치는 길림화학, 아름다운 길림화학’의 참신한 장을 힘써 써나 가게 된다.

/ 송화강넷

길림시 중점 농약제품 프로젝트 건설 순항



길림시의 중점 프로젝트인 상풍화학(吉霖) 유한회사의 년간 6만 3,800톤 농약제품 프로젝트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중으로 현재 이미 설치 단계에 들어갔으며 9월말에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길림경제개발구 공

업단지내에 위치해있는데 2022년에 시공을 시작했다. 부지면적이 12만 9,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갈류 생산작업장, 유통 생산작업장, 저장운송 탱크구역, 하역역 등 농약제품 장치를 건설하게 되는데 연간 판매수입 3억원에서 5억 원을 실현하게 된다. / 강성일보

영길현 마안산촌, 포도산업 발전에 주력

일전, 영길현마안산원에특산물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협회는 서양진 마안산촌 포도산업 발전에 교류 학습,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공동 발전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포도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게 된다.

서양진 마안산촌의 포도 재배는 이미 20여년의 력사를 갖고 있는바 전 촌 800가구 촌민중 절반이 포도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년간의 발전 탐색과 기술 보급을 거쳐 마안산촌은 이미 길림성의 유명한 포도 재배 전문촌으로 되었으며 포도 재배면적은 이미 400헥

타르, 년간 생산액은 5,000만 원을 돌파하였다.

마안산원에특산물협회에는 현재 130명 회원이 있으며 모두 마안산촌 포도 재배 농가이다.

협회는 포도산업의 재배, 가공, 판매와 과학연구 등 분야에 존재하는 력량 분산, 경쟁 무질서, 선진 지역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협회 규약에 따라 전 촌의 포도 생산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등 과학연구, 생산, 판매, 시장 및 기업간의 교량과 뉴대 역할을 함으로써 전 촌 포도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확실하게 돕게 된다. / 송화강넷